

보도시점 (온라인) 2026. 6. 7.(일) 12:00
(지 면) 2026. 6. 8.(월) 조간

K-디지털 정부, 우즈베키스탄 행정 혁신의 본보기 된다... 고위급 연수 실시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우즈벡 디지털기술부 차관 등 고위급 13명 대상 교육
- 디지털정부 전시체험관부터 스마트시티까지, 한국의 우수 행정 모델 직접 확인
- 한국의 행정혁신 경험 공유로 우즈베키스탄 디지털 국가 전환 지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안준호)은 6월 7일(일)부터 6월 15일(월)까지 우즈베키스탄 디지털기술부 루스탐 카림조노프 차관 등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고위급 공무원 13명을 대상으로 ‘우즈베키스탄 지방행정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비전인 ‘우즈베키스탄 2030 발전전략’과 연계해 한국의 디지털정부 혁신 경험을 공유하고, 특히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인 정책 연계 경험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 현장 밀착형 교육으로 한국의 행정 혁신 사례 직접 체감

이번 연수는 협력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고위급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정부 혁신과 국가 발전 전략,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의 행정혁신 전략 강의를 비롯해 사례 발표와 실행계획 수립, 한국 우수 정책현장 견학 등이 마련되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요청에 따라 정책 현장 방문을 강화해 연수생들이 한국의 디지털정부와 지방행정 혁신 사례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디지털정부 전시체험관, 전북특별자치도, 서울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행정에 도입해 운영 중인 전북특별자치도 사례는 우즈베키스탄 지방정부의 디지털 행정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벤치마킹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공지능 전환(AI) 시대 정책 환경 변화와 디지털 국가 전략’을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통해 양국의 정책 방향과 행정 혁신 사례를 함께 논의한다.

연수 마지막에는 한국의 우수 사례를 자국 정책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수립한 실행계획의 이행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교육 성과가 현지에서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이번 연수는 우즈베키스탄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한국의 디지털정부와 지방행정 혁신 사례를 정책과 현장을 통해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자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행정 혁신 경험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교육협력과	책임자	과 장	이성락 (063-907-5051)
		담당자	사무관	신민정 (063-907-5062)

